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 도로 개방 현장 확인 행사에서 시민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기념행사가 지난 16일 나주중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전남 나주, 인공태양을 품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려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광주매일신문 DB>

'군공항 이전' 등 난제 해결

광주시
돌봄정책 전국화·2호선 도로 개방
KTX 증편·복합쇼핑몰 3층도 순항
민생회복·민주주의 수호 노력 성과
공사 안전관리·기후위기 대응 과제

광주시는 올해 12·3 비상계엄의 발부터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 도시철도 2호선 상부도로 개방, 민생 회복 등 민주주의 수호하고 해묵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냈다.

광주시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시청사를 통제하라는 정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청사를 개방해 '헌법수호 비상계엄 무효선언 연석회의'를 개최, 비상계엄이 무효임을 선언했다.

이는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유일하게 광주에서만 있었던 일로 1980년 광주정신이 발휘된 순간이었다.

광주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기까지 122일 동안 주운 광장에서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을 보여줬고 그 결과, 전국 최고 투표율을 새로운 민주 정부 탄생을 이끌었다.

광주시는 특·광역시 최초로 당직제를 폐지하고 AI 당지기를 도입했으며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를 선제 시행해 성과를 거뒀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내년 3월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으로,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는 고용노동부의 '육아기 10시 출근제'로, 산단근로자 조식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천원의 아침밥'으로 내년부터 전국화된다.

올해는 광주지역 최대 현안이자 18년 간 이어진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 문제의 영근 실타래를 풀어낸 해이기도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3일 송·신년 기자회견에서 "군공항 이전 문제는 취임 당시 약속한 '5+1' 중 가장 어렵다고 느낀 '5+1'이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정부 지원의 근거가 되는 군공항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냈고 민간·군 통합공항 이전 지역을 무안으로 특정하는 데 김영록 전남 지사와 합의했다.

또 국회의원과 공직자, 시민사회, 경제계가 함께 무안군민과의 직접 소통에도 나섰다. 이러한 노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굳은 의지와 만나 대통령실 직속 광주 군공항 이전 TF 출범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내년 초 조직 개편을 통해 통합공항미래도시본부를 신설하고 248만평 종전부지와 11만평 규모의 마륙동 탄약고 부지 개발을 통해 광주의 미래 100년을 설계하는 광주형 실리콘밸리 조성에 착수한다.

시민들의 일상 속 불편이었던 도시철도 2호선 상부도로 개방도 약속한 12월22일까지 완료했으며 지역인 숙원인 KTX 호남선 증편도 진전을 이뤘다.

지난달부터 KTX-산천 열차가 1일 2회 증편됐으며 KTX-청동 증편 운행을 위한 변전소 개량 사업에 국비 100여원이 반영됐다.

이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성과로 2027년 KTX-SRT 통합 로드맵과 2028년 평택-오송 2복선화가 완성되면 호남선 증편이라는 숙원도 해결될 전망이다.

복합쇼핑몰 사업 역시 차질 없이 순항 중이다. 광주시는 신속·공정·투명의 원칙으로 행정 절차를 8개월 단축했으며 내년 1월 '더현대 광주'가 실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광천터미널 복합화 사업은 사전협상을 마무리 중이며 어등산 스타필드도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최근 발생한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 붕괴 사고는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 체계의 허점을 드러내며 제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와 함께 올해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광주시 전역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한 만큼 배수 능력 향상과 기후위기 대응체계 강화 역시 중장기적 과제로 남아 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는 늘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희망으로 바꿔냈다"며 "이는 쉽게 얻어낸 행운이 아닌 지역 국회의 원, 전문가, 오피니언 리더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이뤄낸 성과"라고 강조했다. /변은진기자

'첨단 산업도시 도약' 속도

전남도
국가AI컴퓨팅센터·인공태양 유치 성공
목포대·순천대 통합대학 의대도 가시화
AI데이터센터·에너지 등 미래 기반 다져
지역발전 앞당길 핵심 SOC 조성 '착착'

올해 전남도는 글로벌 인공지능(AI)·에너지 영커기업과 초대형 프로젝트 유치가 성공하며 지역 발전을 이끌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냈다. 특히 오랜 시간 얹히고 설킨 난제들을 잇따라 풀어내며 도민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다.

가장 값진 성과는 도민들의 30년 숙원인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이 가시화했다는 점이다.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은 전남도의 지속 건의로 정부의 국정과제 84번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의 실천과제 중 하나에 포함됐다.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는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대학 통합 추진에 합의했으며 현재 구성원 찬반 투표 등 통합을 위한 막바지 행정 절차에 접어들었다. 전남도는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전남권 의대 설립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18년간 난제로 남아있던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 합의를 이뤄낸 것도 괄목할만한 성과다. 앞서 전남도는 2023년 5월 김영록 지사의 '대도민 담화문'으로 광주 민간·군공항 무안 이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12월에는 3조원 규모 '무안 미래 지역발전 비전' 발표 등 무안 군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설득에 공을 들였다.

그 결과, 최근 정부·광주시·전남도·무안군 간 6자 협의회를 통해 광주 민간·군공항의 무안 통합이전을 전제로 한 합의를 도출해 성공하면서 본격적인 추진 국면에 들어설 전망이다.

AI 데이터센터 유치, 해상풍력 활성화 등 AI·에너지 미래 기반도 대거 창출했다.

전남도가 역점 추진 중인 32GW 규모 신안 해상풍력 발전 단지가 지난 4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되며 사업 추진에 날개를 달았다.

지난 10월 글로벌 AI 선도기업 오픈AI와 SK가 전남 서남권에 오픈AI 전용 데이터센터를 공동 구축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삼성SDS 주도 컨소시엄은 국가 AI 산업 발전 핵심 인프라를 조성하는 2조5천억원 규모의 '국가AI컴퓨팅센터' 사업 부지로 '전남 해남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파크'를 낙점했다.

11월에는 전남 전역이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돼 전력 다소비 첨단 기업 유치 기반을 다졌다.

또한 전남도는 이달 1조2천억원 규모의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나주 유치도 이끌어내며 글로벌 에너지 중추 도시로 도약할 기반 마련에 성공했다.

전남 발전을 앞당길 핵심 SOC 조성도 핵심 성과로 꼽힌다. 목포·보성선 철도 개통, 국도 15호선 고층·복개 확장, 여수 월호도-금도, 신안 장산도-자라도 등 해상교량 건설 추진 등이 대표적이다.

농어업과 관련, 비명구·벼 깨씨무늬병·저온·일조량 부족 피해 농업재해 공식 인정, 40년간 이어진 마로해역 어업권 갈등 해결, 김 활성처리제 신규 개발, 김 양식 신규면허 확대 등의 성과를 거뒀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시책으로 1-18세 매월 20만원 출생기본소득 지급, 전남형 만원주택 등 혁신적 인구 정책을 시행했다. 그 결과, 2023년부터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올해 3분기에는 1.11명을 기록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의 정책들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됐고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경전동지할 역대급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올해를 돌아봤다.

이어 김 지사는 "도정 사상 유례 없는 대업을 이뤄내 그 어느 때보다 감회가 새롭다"며 "우리가 치열하게 준비해온 미래 비전이 이 대통령의 진한 전남 사랑과 만나 확실한 정책으로, 예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시원기자

안전한 광주전남



함께 만든 교통안전

교통사고 없는 세상을 위해
운전자와 함께하는 안전벨트 교통안전 캠페인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무사고 당위성

운전할 때, **안전벨트**를 지키면 사고가 안나고
나의 안전과 우리 지역을 위한 최고의 봉사입니다.

※ 안전벨트는 안전거리 준수, 전방주시 유지, 안전벨트 착용하고 운전하는 의미입니다.

교통사고 심각성

교통사고 건수	교통사고 171,475건 발생
사망자	교통사고 사망자 3,877명 발생 (하루 평균 11명 사망)
부상자	교통사고 부상자 272,527명 발생 (부상비용: 158.9%)

※ 광주·전남지역 교통사고 현황 (최근 10년 기준)

무사고 운전 방법

01 안전거리	안전거리 확보하기 * 속도별 안전거리 100km/h 주행 시, 100m 이상 차간거리 유지
02 전방주시	전방주시 유지하기 전방주시 3초 안 할 경우 100km/h 주행 시, 83.3m 눈길과 주황과 불빛
03 안전벨트	안전벨트 착용하기 광주·전남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4명 중 1명 안전벨트 미착용

주관


TS 한국교통안전공단

참여기관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전라남도
 Jeolla남도


광주경찰청
 Gwangju Metropolitan Police Agency


전라남도경찰청
 Jeonnam Provincial Police